

다. 그것은 연공을 하여 연마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에게 때가 된 것으로 응당 지병이 발작하게 마련이다.

제자: 전 인류의 사람은 모두 같으나 동양에는 불교, 서양에는 기독교가 보급되어 차이가 그렇게 큼니다. 불교는 서양에서 아주 미약한데 두 개 체제입니까?

사부: 왜 서양은 기독교이고 동양은 불교인가? 동양 종교 혹은 서양 종교는 왜 같지 않고 차이가 대단히 큰가? 사실은 기독교 역시 불가체계 범주 내의 것이다. 다만 인류의 차이, 문화적인 차이와 천체문화(天體文化)의 차이가 인류의 외관 형상을 같지 않게, 사유형식을 같지 않게 만들었는데, 바로 사람의 표준 특징이 같지 않다. 곧 구성된 그의 부처수련 방법이라든가, 고층차의 신(神)에 대한 인식 개념이라든가, 이해하는 것이 같지 않다. 실제로는 같은 것으로 모두 부처 이 경지에 속한다. 실제로 예수는 바로 여래 이 층차 중에 있다. 하지만 문화적으로 같지 않고 사유 개념이 같지 않으며 형상의 차이로 말미암아 그를 부처라고 부르지 않는다. 동양에서는 부처라고 부른다. 당연히, 형상이 같지 않음과 형상의 차이로 예수 그의 천국 사람은 모두 흰 천을 두른 옷을 입고 있다. 그러나 불국(佛國)세계의 사람은 모두

누런 천으로 감싸는 옷을 입고 있다. 두발(頭髮)도 같지 않다. 가장 큰 차이가 두발이다. 도가는 머리를 빗어 틀어 올리고 불가 나한은 대머리이며 보살은 중국 고대 여인의 그런 머리 양식이다. 무엇 때문인가? 중국 고대의 이런 옷차림과 천인(天人)의 옷차림은 같다. 실제로 천국(天國) 하늘 세계 사람이 입는 차림새와 같다. 서양 역시 이리하다. 그것은 바로 그 천국 세계의 이런 차림새이다. 사람은 바로 이리하다. 물론 지금 이 유행하는 옷은 모두 새로운 디자인이다. 사실 현대인이 입은 옷은 가장 좋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다.

왜 백인 세계에는 불교가 없는가? 동양인의 세계에는 기독교가 없는가? 엄격하게 말하면 없다. 나의 기억으로는 『성경』 혹은 이런 유의 책에서 당시 여호와(耶和華)와 예수는 모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즉 너희는 동쪽으로 가지 말라. 말이 더 있는데, 나는 이 한 구절만 기억한다. 너희는 동쪽으로 가지 말라. 그의 제자들에게 동쪽으로 전하지 말라고 알려주었다. 그의 제자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원정군(遠征軍)을 따라 동양으로 왔다. 이 때문에 한 가지 문제가 나타났다. 인종(人種), 세계의 인종을 뒤섞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금 인종이 뒤섞이면서 한 가지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져왔다. 뒤섞

인 후 위와의 대응관계가 없어졌으며 그는 뿌리를 잃어 버렸다. 뒤섞인 인종은 뿌리를 잃는다. 그렇다면 천국 세계에 그를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은데,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며 어디에서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당신이 보라. 이 유럽과 아시아 대륙이 연결된 곳은 과거 사막이고 무인(無人) 지역으로, 교통 도구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건너오기가 아주 어려웠다. 현대화 도구의 진보에 따라 이는 모두 타파되었다. 그러므로 인종(人種)은 갈수록 더욱 뒤섞일 것으로, 이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것을 더 말하지 않겠다. 즉, 말하자면, 위에서는 이런 인종을 승인하지 않는다.

내가 방금 말한 문제는 인종과 위의 대응관계인데, 위에 있는 이 백인(白人)으로 말하자면, 이 세계에서, 이 우주에서, 백인이 차지한 것은 이 우주의 한 작은 부분, 아주 작은 한 부분으로서, 그것이 바로 그의 천국 세계이다. 그러나 이 황인종과 이 부처의 세계, 도(道)의 세계는 대단히 많은 것으로 전반 우주 중에 거의 모두 가득 차 있다. 이 여래 부처는 갠지스 강의 모래와도 같이 많으며 대단히 많고 대단히 크다. 황인종과 같은 이런 사람의 형상이 이 우주 중에는 특별하게 많다. 그러므로

상하(上下)의 인종은 대응된 것이라고 말한다. 예수가 너희는 동쪽을 향하여 전하지 말라고 한 뜻은,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예수는 동쪽으로 전하지 말라고 알려주었다. 나 역시 예수의 천국 속에는 동양인이 없는 것을 발견했다. 아주 슬프다! 근대에 와서 사람들은 모두 그의 주(主)의 말씀마저도 듣지 않는다. 동양사람 역시 부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러한 일을 난잡하게 하였다. 나는 또 부처의 세계 속에 이전에는 백인이 없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전하는 이것을 왜 서양 사람에게 전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내가 전하고 있는 것은 우주의 이치이며 전반 우주의 이치이기 때문이다. 무릇 나의 이 대법에서 수련하는 백인이 장래에 수련 성취 하면 그의 신체 형태와 그의 수련형식은 모두 예수 천국 사람의 그러한 형태와 같게 되는 것으로, 그가 수련 성취하면 그렇게 된다. 그러나 황인종이 수련 성취 하면 부처 이쪽의 형상이다. 그러므로 나는 양쪽 사람을 모두 제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하는 이 법이 대단히 크기 때문이다. 내가 또 당신에게 알려주지만,…… 여태껏 이렇게 큰 문을 열어놓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역시 원인이 있다.

다. 우리는 다만 이치를 말할 뿐이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이후 당신이 수련하려고 하면 당신의 신체가 편치 않을 수 있는데, 아마 당신 전생전세(前生前世)의 업을 밀어내는 것일 수 있다. 나는, 어떤 사람은 전생할 때 몇 십 생, 몇 십 세(世)라든가, 백여 세(世)를 전생했고, 매생매세(每生每世)에 모두 아주 많은 병이 있었음을 보았는데, 당신에게서 모두 제거해 주어야 한다. 어쨌든 당신에게서 다 제거해 주어야 한다. 다른 공간에서 당신에게서 없애 버리는 것이 더욱 많으며 반드시 당신에게서 일부분을 없애줘야 한다. 하지만 다른 공간 속에서 전부 다 없애버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당신으로 하여금 고통을 좀 겪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감당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나쁜 일을 하고 갚지 않아도 되는 것과 같다. 당신이 수련 성취된 그 날 당신이 부처의 위치에 놓였다 해도, 당신은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남도 역시 당신이 어떻게 올라온 것인가? 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므로 당신은 일부분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 감당하는 동시에 당신의 오성(悟性)은 제고 될 것이다. 당신은 그것을 병으로 여기겠는가? 아니면 수련인이 업을 없애는 것으로 여기겠는가?

제자: 사부님, 혼혈아는 어찌 된 일입니까?

사부: 방금 나는 혼혈아의 일을 말했는데 천기(天機)를 인류에게 알려준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찌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한 가지 더욱 큰일을 했는데 혼혈한 사람도 제도할 수 있다. 하지만 바로 이 한 시기에서만 내가 그를 제도할 수 있다. 비록 동양인과 서양인이 모두 지구에 있으나 동서양은 격리된 것으로 사람은 모르고 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동양인이 말하는 무슨 ‘구(九)’는 이 음이 좋은바, 지구(持久)적이라는 것이고, ‘팔(八)’이란 이 음은 ‘발(發)’로, 부자가 된다는 것인데, 확실히 조그마한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동양에서 사용되고 있는 무슨 풍수를 본다든가, 지리를 본다든가 하는 등등 이런 것을 서양에 가져가면 맞지 않고 소용없으며 백인에게는 소용이 없다. 또 백인이 말하는 그 무슨 별자리라든가, 무슨 현상이라든가 하는 것이 동양인에게는 역시 소용이 없다. 어떤 사람은 소용이 있다고 여기는데 그것은 당신이 소용이 있다고 여긴 것이지, 사실은 소용이 없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백인의 생물권, 그 속에는 그들 공간을 구성하는 특수물질 요소가 존재하며, 동양인의 생물권 속에는 동양인의 이 생명을 구성하는 특수한 물질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생명구성 중

에는 이러한 것이 관통되고 있다. 그러므로 양쪽은 같지 않다. 사람이 혼혈한 후에 당신은 그가 낳은 아이가 혼혈아임을 보는데, 그러나 이 아이의 생명 중간에는 틈이 있으며, 갈라놓으면 그는 신체(機體)와 이지(理智)가 온전하지 못하고 몸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으로 된다. 현대의 과학은 모두 알고 있는바 세대가 내려갈수록 못해진다. 그러므로 그는 이런 상태를 조성하게 된다. 물론 이 사람이 수련하면 나는 해줄 수 있으며 처리할 수 있다. 수련하지 않는 속인은 함부로 해줄 수 없다.

제자: 연공하면서 충(沖)을 할 때, 손바닥이 더워짐을 느꼈습니다. 저는 어떠한 공법도 다 이러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공할 때 저는 마치 보살인 것처럼 유아독존(唯我獨尊)하다고 느끼는데 맞습니까?

사부: 연공할 때 어떤 의념도 가하지 말아야 한다. 밑 좋은 자신이 바로 부처라고 하면서 수련한다. 그는 본래 아닌데, 그의 육체가 변했는가? 변하지 않았다. 수련 성취되어 장래에 변하는 것은 누구인가? 副元神(푸웬선)이다. 나는 이 법을 전할 때 내가 제도하는 것은 主元神(주웬선)이라고 이미 당신에게 알려주었다. 그렇다면 당신의 副元神(푸웬선)이 수련 성취되었어도 당신은

일을 한 사람이 없었다. 오로지 수련해야만 해줄 수 있으며 우리는 당신에게 이 일을 해준다. 하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心性(썬썬)을 파악해야 하며 신체가 불편하기만 하면 ‘아이고, 나는 또 병에 걸렸구나.’라고 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병에 걸렸다면 약을 먹도록 하고 우리도 책임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수련은 깨달음에 달린 것이기 때문인데, 어떠한 강제적인 규정도 없다. 우리는 당신이 아플 때 약을 먹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으며 그런 적이 없다.

일부 사람은 자신을 연공인으로 간주하지 못하고 연공만 할 뿐 법을 배우지도 않으며 어떤 짓이든 다 한다. 그가 연공을 했다고만 보지 말라. 나의 법신은 그를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으면 그는 바로 속인이고 병을 얻게 된다. 만약 우리가 당신에게 약을 먹지 못하게 정한다면, 당신은 수련인의 표준에 따라 자신을 대할 줄 모르고, 아직도 속인이라 때가 되면 병을 얻게 되는데, 당신은 리홍쯔(李洪志)가 나보고 약을 먹지 말라 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약을 먹고, 먹지 않음을 말하지 않는다. 당신 자신이 파악해야 한다. 이는 당신에 대한 검증인데 당신이 자신을 연공인으로 간주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병이 있게 마련이다. 바로 이런 이치이

신체가 불편하기만 하면 그는 이것이 병이라고 생각하여 약을 먹어야 하겠다고 한다. 그는 연공하는 한편 약을 먹으면 더욱 좋다고 여긴다. 우리는 한 가지 이치를 보았는데, 병원은 업을 소멸할 수 없으며 의사는 수련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위덕(威德)이 없으며 그는 속인 중의 기술자로서 그는 당신에게, 다만 이 표면적인 고통을 없애주고, 이 병을 당신 심층(深層) 중에 남겨줄 따름이다. 약을 먹는 것은 신체 속으로 내리누르는 것으로 쌓아두는 것과 마찬가지다. 표면적으로는 고통스럽지 않지만, 신체의 심층에 누적된다. 수술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종양이 생겼으면 이 종양을 떼어버린다. 그는 다만 표면적인 물질을 떼어버렸을 뿐이며 병이 생기는 진정한 원인은 다른 공간 속에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아주 심한 업력병(業力病), 그것은 또 재발할 수 있다. 어떤 것은 치료하여 나온 것 같고 금생에 재발하지 않는다 해도 내세(來世)에 그것이 다시 찾아온다. 그것은 심층(深層) 속에 눌러 있다가도 조만간 되돌아 나오게 마련이다. 한 사람의 업력은 어쨌든 갚아야 하는데 바로 이런 이치이다.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당신 생명의 본원(本源)에서부터 당신의 더러운 것을 모두 밀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마찬가지로 육도(六道) 중에서 윤회(輪廻)하게 된다. 두 생명이 갈라질 때 당신은 아무것도 모른다. 손바닥이 더워짐은 정상이다.

제자: 대법(大法)을 수련함에 조금도 의념을 가하지 말아야 합니까?

사부: 어떠한 의념활동도 없다. 어떠한 의념도 다 집착이다.

제자: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사부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동양인과 서양인의 문제인데, 가령 이전에 많은 사람이 원래 동양인이었으나 전세(轉世)하여 다시 태어날 때 서양인으로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부: 그건 상관없다. 여기에 두 가지 상황이 있다. 만약 그가 목적이 있게 온 것이 아니라면 그는 이 신체의 변화에 따라야 한다. 우리가 변화시키는 사람은 이 사람이다. 만약 목적 있게 온 사람이라면 그것은 별도로 말해야 하며 그것은 다른 상황이다.

그 밖에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이 법을 선전할 때에도 방법에 주의해야 한다. 그가 흥미를 느껴 배운다면 당신 역시 공덕을 쌓는 것이며 이 역시 공덕무량(功德)이다.

無量)한 일이다. 하지만 한 가지가 있다. 다른 사람이 배우려고 하지 않는데 당신이 꼭 배우라고 권하며 다른 사람을 끌고 와서 배우게 한다면 나는 좋지 않다고 말한다. 그가 부처수련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으면 부처도 그를 어찌할 방법이 없다. 사람이 무엇을 얻으려 하고 무엇을 구하려 하는 것은 사람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착하도록 권하고 착하도록 권하는 것이라, 당신은 그에게 알려줄 수 있지만, 억지로 잡아끌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여러분에게 알려준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배울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이 밖에 우리 장래의 보도원, 혹은 책임자는 일할 때 행정적인 수단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은 모두 수련하는 사람이므로 법으로 설득해야 한다. 여러 사람이 모두 법을 배우고 있으므로 보도원이 어느 점을 잘하지 못했고 어느 점에 맞지 않게 했다면, 수련생은 보고 나서 당신의 心性(썬쌩)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잘못된 일을 여러분은 따라 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 때문인가? 여러 사람이 모두 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당신 자신의 관념에 근거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법의 요구에 따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당신에 대해서도 역시 이렇게 대한다. 당신이 배우려면 배우고 배우지 않

은 주의하지 않으며 그를 아주 평범한 한마디 말로 삼아 말하고 지나쳐 버린다. 그것은 우주의 규칙인바 이전에는 바로 그러했다.

아마 당신은 이 장(場)에서 나간 후 신체가 아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가 있다. 당신이 수련함에 따라 당신의 신체는 다시 불편해질 수 있다. 무엇 때문인가? 당신이 생생세세(生生世世)에 모두 업력이 있기 때문이다. 일생일세(一生一世)의 것을 일시에 밀어낼 수 없다. 일시에 밀어낸다면 사람은 즉시 죽어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업력을 점차 밖으로 배출하며 신체 안에서 배출시킨다. 그러므로 당신은 한 동안 지나서 신체가 아주 불편함을 느끼며 병을 얻은 것이 아닌가?! 라고 여길 것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그것은 병이 아니다. 하지만 표현됨은 몹시 아프며 어떤 것은 아주 심하여 걸보기에 아주 심각하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알고 있어 불편하면 기뻐한다. 사부님께서 나를 책임져주고 나의 병을 없애주며 나의 업을 제거해 주고 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불편하지 않고 신체적으로 감각이 없으면 그는 도리어 대단히 조급해한다. 사부님께서 나를 책임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왜 업을 없애지 않는가? 하지만 흔히 일부 신(新) 수련생은



내가 말한 것은 천고의 수수께끼이므로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간단히 말했다고만 보지 말라. 그들은 무슨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써 봐도 사람은 수련 성취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았다. 당신의 몸에서 하나를 수련해 냈기에 당신 역시 德(더)를 쌓은 것이 되고 고생을 겪었으며 필경 당신의 청춘을 종교에 던진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세(來世)에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의 副元神(푸웬션)으로 전생하게 하는가? 아마 그는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으나 내가 보기에는 이 기회가 아주 적다. 그런 다음 다시금 당신으로 하여금 수련하게 한다? 이런 경우 역시 너무나도 적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복을 받는가? 큰 벼슬을 얻고 큰 부자가 되며 큰 장사를 한다. 내세(來世)는 바로 이렇게 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필경 그의 일생에 德(더)를 쌓았고 복을 쌓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자리에 앉은 누구도 이렇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매번 내가 이 일을 말한 다음에도 사람들은 나에게 이 공(功)이 어떠한가, 저 공이 어떠한가, 저 교(教)가 어떠한가, 이 교가 어떠한가 묻는데, 나는 그의 깨달음이 너무나도 낮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은 우리 法輪大法(파룬파파)의 그 특징을 보라. 그 위에 모두 있으나 사람들

으려면 가도록 하라. 우리는 어떤 사람도 해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나는 그만 배우겠다고 한다면, 배우지 않으면 그만이고 당신이 배우려 하고 수련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당신에 대해 책임지며 보증하고 할 수 있다. 형식은 느슨하지만, 부처수련은 엄숙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크고 엄숙한 법에 조그마한 편차라도 생기게 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큰 것을 사람에게 전해 준 적이 여태껏 없었다. 당신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오게 되었으며 마치 다른 사람이 알려줘서 오게 된 것으로 여길 것이다. 당신에게 알려주는데, 당신은 인연이 있는 것이며 어느 때에 이런 기회와 연분을 이뤘는지도 모를 일이다. 아무런 까닭 없이 온 사람은 아주 적다. 나는 여러분이 문제를 더 제기해도 별다른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당신이 묻고자 하는 것은 법 안에서 모두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제자: 수련의 불이법문(不二法門) 문제입니다. 제 생각에 어떤 사람이 法輪大法(파룬파파)를 배운다면 다른 것을 섞어서 배울 수도 있고, 또 다른 일부 전통적인 수술(數術)의 것도 있을 것입니다만…….

사부: 부처수련은 하나의 엄숙한 문제다. 당신이 주역

(周易), 팔괘(八卦)를 연구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다. 내 생각에는 수련시간이 제한돼 있으므로 만일 당신이 그 시간에 이法輪(파륜)을 명백하게 연구한다면 너무나도 대단하다. 그 무엇도 그보다 크지 못하다. 바로 지금의 속인사회가 알고 있는 팔괘의 이치와 많은 수술(數術)의 것들은 은하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이 우주가 크기로 얼마만큼이나 큰지 당신은 모르고 있다. 3천 개의 우리 이러한 우주가 한 개의 더욱 큰 우주를 구성하고 있다. 3천 개의 더욱 큰 범위의 우주가 한 개의 더욱 큰 범위의 우주를 구성하고 있다. 그 속의 신(神), 부처는 많기가 부지기수이다. 그 은하계가 다 무엇인가? 아주 작다. 대법을 배우는 사람, 당신이 생각해 보라. 이렇듯 큰 법을 당신에게 전해 주었기에 나는 수련인이 그런 일에 정력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것을 전공으로 배우는 사람이라면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것은 속인 중의 학문이므로, 그럼 당신은 배우도록 하라. 당신이 취미로 배우겠다면 내 생각에 가장 좋기는 이 마음을 거두도록 하라! 나는 당신을 위해 책임져야 하는바, 부처수련은 엄숙하다. 그렇다면 당신은 가장 좋기에는 당신의 정력을 법을 연구하는 데에 쓰도록 하라. 당신은 끝없는 득을 얻을

들어 서로 쟁탈하는데 보증하고 이리하다. 그러므로 신(神)들은 사람을 제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내가 제도하는 것은 당신이다. 당신의 副元神(푸웬션) 역시 당신과 같은 이름을 부르며 동시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고 모두 이 신체를 좌우지하고 있다. 다만 당신은 그의 존재를 모르고 있을 뿐이다. 그들이 제도한 것은 副元神(푸웬션)이며, 당신에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副元神(푸웬션)에게 말해 준 것이다. 당신은 때로 무의식중에 어떤 말을 하지만, 당신의 대뇌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가부좌하고 있는데 가부좌만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채 앉기만 하면 몇 시간씩 앉는다. 그는 출정(出定)하면서 매우 기뻐한다. 나는 참말로 잘 연마했다. 앉기만 하면 몇 시간이고 정(定)한 채로 있다고 한다. 너무나도 슬프다! 당신이 연공했는가? 당신은 알고 있는가? 연마한 것은 모두 다른 사람이다.

과거 어떤 도가는 당신의 主元神(주웬션)을 마취하고 副元神(푸웬션)이 수련할 수 있게 하려고 당신에게 술을 마시게 했다. 도가에는 술을 마시는 사람이 매우 많다. 자신을 마취시킬 정도로 마셔서 아무것도 모르고 쿵쿨 잠을 자는데 副元神(푸웬션)을 데리고 연공했다.

지나 당신의 호법(護法)이며 그도 수련 성취되어 당신을 따라다닐 수 있다. 당신은 내가 오늘 이런 일을 말했다고만 보지 말라. 당신들은 아직 그렇듯 높게 인식하지 못한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다른 수련법을 말하며, 이 공(功)이 어떻고 저 공이 어떻다고 하는데, 그는 아직도 내가 방금 한 이 말의 함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일체 수련법은 모두 당신의 副元神(푸웬션)을 제도했지 당신을 제도하지 않았다. 당신을 제도하지 않았다! 나는 한 가지 천고의 수수께끼를 밝혀줬다! 나는 무척 큰 곤란을 거쳐서야 비로소 이 일을 말할 수 있었다. 과거에는 당신이 아무리 수련해도 당신을 제도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수련한 것은 누구인가? 당신이 한평생 수련했어도 당신은 여전히 육도윤회(六道輪迴)로 들어가야 하며 당신은 내세에 무엇으로 전생 될지 모른다. 당신이 말해 보라. 당신이 가련하지 않은가! 왜 그런가? 과거에 종교든 다른 수련법이든, 이 主元神(주웬션)을 제도하지 않았다. 그들은 主元神(주웬션)을 제도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미혹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명백해졌다고 느끼겠지만, 문만 나서면 또 제멋대로인지라, 그는 또 속인의 현실이익 중에 빠져

텐데 어떤 학문도 모두 비교할 바가 못 된다.

속인 중에서 신(神)이요, 귀신(鬼)이요 하는 짓을 한다면 그것은 더욱 마땅치 않다고 나는 말한다. 왜냐하면, 그런 저령(低靈)적인 것은 모두 귀신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러한 것을 구하는데, 우리 이 불법과 그야말로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또한, 그것은 모두 사(邪)한 것으로 귀신이지 않은가. 또한, 이 점치는 것에 대해 나는 책에서 이미 이 문제를 상세하게 말한 적이 있다. 수련이란 엄숙한 문제이다. 한 사람에게 에너지가 있을 때 그가 한 말은 그 일을 고정할 수 있다. 속인의 일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당신이 남에게 이렇다고 봐주며, 당신이 말을 하고, 말한 대로 되었다면, 당신은 나쁜 일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더욱 높은 표준으로 요구해야 하는데 나쁜 일을 했다면 그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다. 내가 신체를 청리해 줬을 당신이 수련하려는 것을 보았기에 해준 것이다. 만일 당신이 수련하려 한다면 당신은 이러한 것을 내려놓고 아주 순정(純淨)하게, 아주 깨끗하게 수련하는 것이 가장 좋다.

제자: 저는 사상부담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렇듯

좋은 연분이 있어 法輪大法(파룬따파)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2권에서 말한 것을 보았는데 이 한 세(一世)에 수련 성취하지 못하면 제2세에 이어서 수련 하겠다고 맹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진정한 목적은 수련하여 원만(圓滿)함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부: 나이가 많은 사람은 이런 문제가 존재한다. 비록 우리 이 공이 수련됨이 아주 빠르다 하더라도 그의 남은 생이 수련함에 넉넉한가, 넉넉하지 않은가? 엄격히 말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다 넉넉하다. 연령이 얼마나 많아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일반 사람은 잘 파악하지 못한다. 당신은 입으로는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파악하지 못한다. 당신이 그렇게 높은 경지로 수련되지 못했고 마음이 그렇게 높은 표준에 도달하지 못했으므로 당신은 파악하지 못한다. 우리 이 공은 성명쌍수(性命雙修)로서 한 편으로는 수련하고, 한편으로는 당신의 신체를 개변시키며 당신의 생명을 연장한다. 성명쌍수라, 연마하는 한편 연장하고, 연마하는 한편 연장하는 것으로, 이론적으로 연령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라도 엄격히 말하면 모두 시

어떤 것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 마음을 제거해 버린다. 당신이 장사를 크게 해도 상관없으며 수련에 영향 주지도 않는다. 당신이 장사를 크게 한다면 물론 돈은 많이 벌겠지만, 마음속으로는 금전을 목숨으로 여기지 않는다. 당신은 파리가대기만 한 작은 이익을 위해 집착하기 그지없는 이러한 것이 없다. 당신의 집을 금으로 지었다 해도 당신은 마음에 두지 않고 아주 담담하게 여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수련인에게 요구하는 표준이다. 당신이 얼마나 큰 벼슬을 하든지 국민을 위해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구하는 수련인의 표준이다. 이렇지 않은가? 우리는 종교를 벗어나 이것을 말하며 우리는 그것의 실질을 말한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모두 수련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가 있다. 속인 중의 수련은 바로 직접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 연마(魔煉)하는 것이다. 왜 내가 진정으로 당신을 제도한다고 말하는가? 바로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이 자신을 제고하고, 진정으로 사회의 압력을 감당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이 자신을 제고하기 때문에 이 공은 마땅히 당신에게 주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신을 제도하는 것이다.

副元神(푸웬션)도 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언제까

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사무직 근로자, 즉 말해서 회사원인 그는 자기의 계층에서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이익적인 쟁탈이 생기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 면으로 되는 이 모순 속에서 그가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이다. 사장이 된 그는 어떻게 그의 이 계층에서 장사를 하며 사장과 사장 사이, 사람과 사람의 마찰 중에서 그가 어떻게 좋은 사람으로 되는가 하는 것이다. 그 역시 그의 모순이 있다. 대통령이 되어도 마찬가지다. 그가 대통령이 되어도 그는 이 나라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에게는 뜻대로 되는 것이 있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으며, 일을 성사한 것이 있는가 하면 성사하지 못한 것도 있으며 나라와 나라 사이에 역시 모순이 있다. 그러므로 그는 노심초사할 일이 있다. 사람이 사는 것이 바로 이러하다. 그러므로 매 하나의 경지 중에서 당신은 모두 속세를 벗어날 수 없고 사람을 떠날 수 없으며 사회를 떠날 수 없다. 그러므로 당신은 모두 모순이 존재하게 된다. 당신이 이런 모순 속에서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는가, 당신이 좋은 사람으로 될 수 있다면 당신은 속인을 초월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 이치이다. 물질적으로 당신의

간이 넉넉하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는데, 무릇 연장하여 온 생명은 백 분의 백 수련하는 데에 써야 하는 것으로 속인 중의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럼 그가 또 자신의 생명이 연장되어 온 것임을 모르고 그가 또 파악하지 못해 백 분의 백 연공인의 요구에 따라 하지 못할 경우, 그는 수시로 이 세상을 뜰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이 직면한 문제이다.

하지만 만약 그가 정말로 수련 성취하지 못하고 정진(精進)하지 못했다면 세 가지 길뿐이다. 하나는 내세(來世)에 이어서 수련하는 것이다. 나의 법신이 지켜볼 것인데, 전생(轉生)하는 것마저 지켜보며 어느 집에 전생해야만 법을 얻을 수 있는지도 모두 배치해 준다. 또 하나는, 당신이 더는 수련하고 싶지 않고 또한, 인류가 너무나도 고생스럽기에 인류에 머무르고 싶지도 않다면 어느 한 층으로 수련된 그 층으로 간다. 당신이 삼계(三界)를 벗어났다면 삼계 밖의 어느 한 층 하늘에서 중생이 될 것이고 당신이 삼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면 삼계 내의 어느 한 층 하늘에서 천인(天人)으로 된다. 하지만 삼계 내에서는 500년, 300년 같지 않은 시간을 거쳐 또 내려와 윤회해야 하는 것으로, 다만 거기에서 몇 백 년 복을 누림에 불과할 뿐이다. 이것이 한 가지 문제이다.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은 확실히 아주 괜찮게 수련했다. 하지만 법에 대한 이해로 말미암아 아직 표준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혹은 일부 특수한 공헌을 한 이런 사람은法輪世界(파룬쓰제)에 가서法輪世界(파룬쓰제)의 중생이 될 수 있다. 역시 삼계 밖이라 윤회할 필요가 없다. 그건 물론 좋은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람이 비교적 적으며 요구도 비교적 엄격하다. 하지만 그는 부처가 아니며 또 나한도 아니고 또 보살도 아닌 것으로, 그는法輪世界(파룬쓰제)의 중생이며 백성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이러하다. 사실 법을 얻었으므로 부처 수련의 기회와 인연은 이미 심어졌다.

제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의 층차(層次)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사부: 나는 이렇게 말했다. 상사(上士)가 도(道)를 들으매 근면히 행한다고 한 것은 내가 노자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중사(中士)가 도(道)를 들으매 있는 듯 없는 듯하며, 하사(下士)가 도(道)를 들으매 대소(大笑)하도다. 무슨 뜻인가? 상사(上士)가 도를 듣는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이 수련에 대한 것을 듣기만 하면 즉시 수련하려고 하며 또 믿는데, 이러한 사람은 아주 드물

당신은 이미 아주 높은 경지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가 있다.法輪大法(파룬파파)를 수련하면 화상(和尚)들처럼 아무것도 다 가지지 않으며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닌가? 아니다. 우리는 최대한 속인에 부합하여 수련한다. 당신이 속인사회 중에 있기 때문에 당신은 특수할 수 없으며 표면적으로 당신은 정상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최대한 속인에 부합하여 수련해야 한다. 결혼해야 한다면 젊은 사람은 결혼해야 하고, 당신이 무슨 장사를 하든지, 벼슬을 하든지, 이는 모두 영향이 없다. 우리 한 가지 이치를 말해 보자. 사람은 속인사회 중의 매 한 계층에 모두 그것의 모순이 있다. 우리는 종교의 틀을 던져버린다. 도가는 그의 태극을 벗어나지 못하고 불교 역시 그의 이치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적 설법을 버리며 우리는 전반 우주의 이치를 말하고 있다.

우리는 당신이 어느 한 계층의 사람이든지, 당신이 어떠한 일,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 모두 수련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무엇 때문인가? 매우 평범한 노동자인 그는 먹고사는 것을 위하여, 일부 사람과 사람 사이, 그와 사업 사이에서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모순 중에서 그가 어떻게 좋은 사람으로 되는가 하는 문제가

각한다면 수련에서 입정(入定)에 영향을 줍니까?

사부: 主元神(주원선)과 당신의 입정(入定), 이것은 별개의 일이다. 처음에는 조용해질 수 없다. 사람은 왜 조용해지지 못하는가? 사람의 집착심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의 장사라든가, 당신의 공부라든가, 당신의 사업이라든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순이라든가, 당신의 아이가 병이 있다든가, 당신의 부모를 돌볼 사람이 없다든가, 세간(世間)의 일을 당신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어느 것이든 당신 머릿속에서 차지한 비중이 모두 크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당신은 당신이 조용해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거기에 앉아서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스스로 뒤집혀 나온다. 그러므로 어떤 방법으로든 다 조용해질 수 없다. 내가 책에서 말한 것처럼, 당신은 입으로 불호(佛號)를 외우면 조용해질 수 있고, 마음을 지켜보고 있으면 조용해질 수 있고, 혹은 셈을 세게 되면 조용해질 수 있다고 하지만, 모두 조용해지지 못한다. 그것은 일종 수단으로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 오직 당신이 집착심, 속인 중의 집착심을 점차 담담하게 내려놓아야만 한다. 담담하게 내려놓았을 때 당신은 자연히 조용해질 수 있다. 당신이 정말로 조용해질 수 있을 때

다. 박차고 일어나서 끝까지 수련하는데 이는 상사(上士)에 속하며 상사가 도를 들으매 근면히 행하는 것이다. 중사가 도를 들으매 있는 듯 없는 듯하다. 무슨 뜻인가? 모두 와서 배우니 우리도 따라서 배우자. 아무튼, 아주 좋다고 느낀다. 그러나 바쁘거나 속인 중의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면 잊어버린다. 어쨌든 다른 사람들도 배우지 않으니 우리도 배우지 말자. 배워도 되고 배우지 않아도 되는 이것을 중사(中士)가 도(道)를 들으매 있는 듯, 없는 듯하다 한다. 아마 수련 성취할 수도 있고 수련 성취 못 할 수도 있다. 수련 성취하든, 수련 성취하지 못하든 모두 자신이 결정한다. 하사(下士)가 도를 들으매 대소(大笑)하도다. 이 하사가 도(道)를 들으면, 수련은 무슨, 하하 웃으며 모두 미신이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다. 물론 그는 더욱 수련할 수 없으며 바로 이러하다. 매 사람이 얼마나 높게 수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한다면, 내 생각에는 자신의 그 마음이 얼마나 크게 감당해 낼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이 문을 나서서, 조그마한 번거로움에 부딪히기라도 하면, 당신은 견뎌내지 못한다. 내가 여기에서 말하면 여러분은 모두 이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정법(正法)수련이라, 가진 에너지는 모두 자비롭고 상화하므로 여러분은 여기에 앉아서 모두

아주 편안함을 느끼며 내가 말하는 것을 듣기 원한다. 장래에 당신들이 수련해도 이리하다. 정법수련은 역시 이리하다. 그러나 당신이 이 문만 나서면 당신이 아니며 머릿속에는 속인이 집착하는 것들이 다 올라온다. 또한, 아주 강렬하여 수련이고 뭐고 다 잊어버린다면 내 생각에는 안 된다.

제자: 혼혈아의 상황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부: 이 혼혈아를 나는 이미 말했다. 나는 다만 이 말법 시기에 나타난 현상을 말했을 뿐이다. 만약 당신이 혼혈아라면 물론 이것은 당신을 원망할 것이 아니며 당신 부모를 원망할 수도 없다. 아무튼, 인류가 이러한 혼란한 현상을 조성하여 이러한 상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황인종과 백인종, 또 흑인종도 있는데 하늘에는 대응되는 민족이 있다. 그렇다면 그의 그 민족이 아니고 그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는 확실히 상관하지 않는데 이것은 진짜 사실이다. 내가 여기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은 모두 천기(天機)이다. 혼혈아는 모두 말법 시기에 나타난 것으로 사람을 원망할 수도 없다. 사람들은 모두 물결에 따라

흐르는 것이며 누구도 진상을 모르고 이렇게 지나왔다. 당신이 수련하려 하면 나는 방법이 있다. 당신이 어느 천국에 가든지 말하자면, 우리는 당신의 상황을 보아야 하며 어느 한 부분이 남겨진 것이 많다면 나는 당신에게 더 많이 동화(同化)되도록 해준다. 아무튼, 당신은 수련만 하도록 하고 이러한 일을 상관하지 말라. 법을 얻었는데 무엇이 두려운가. 나는 예전에 설법하면서 이것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일을 조만간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자: 인류가 모두 소식(吃素)한다면 그것은 아주 좋은 것이 아닙니까?

사부: 안 된다. 그것은 당신이 생각한 것이다. 하늘에서 사람에게 사람이 생활하는 표준을 규정했는데 오직 이래야만 비로소 사람이다. 왜냐하면, 육식은 사람 신체의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에 채소보다 낮기 때문인데, 이한 점은 확실하다. 하지만 수련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제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정공(靜功)을 연마할 때 정(靜)에 대한 구체적 표준이 있습니까? 대법을 수련하는 사람의 主元神(주원선)이 늘 자신을 생